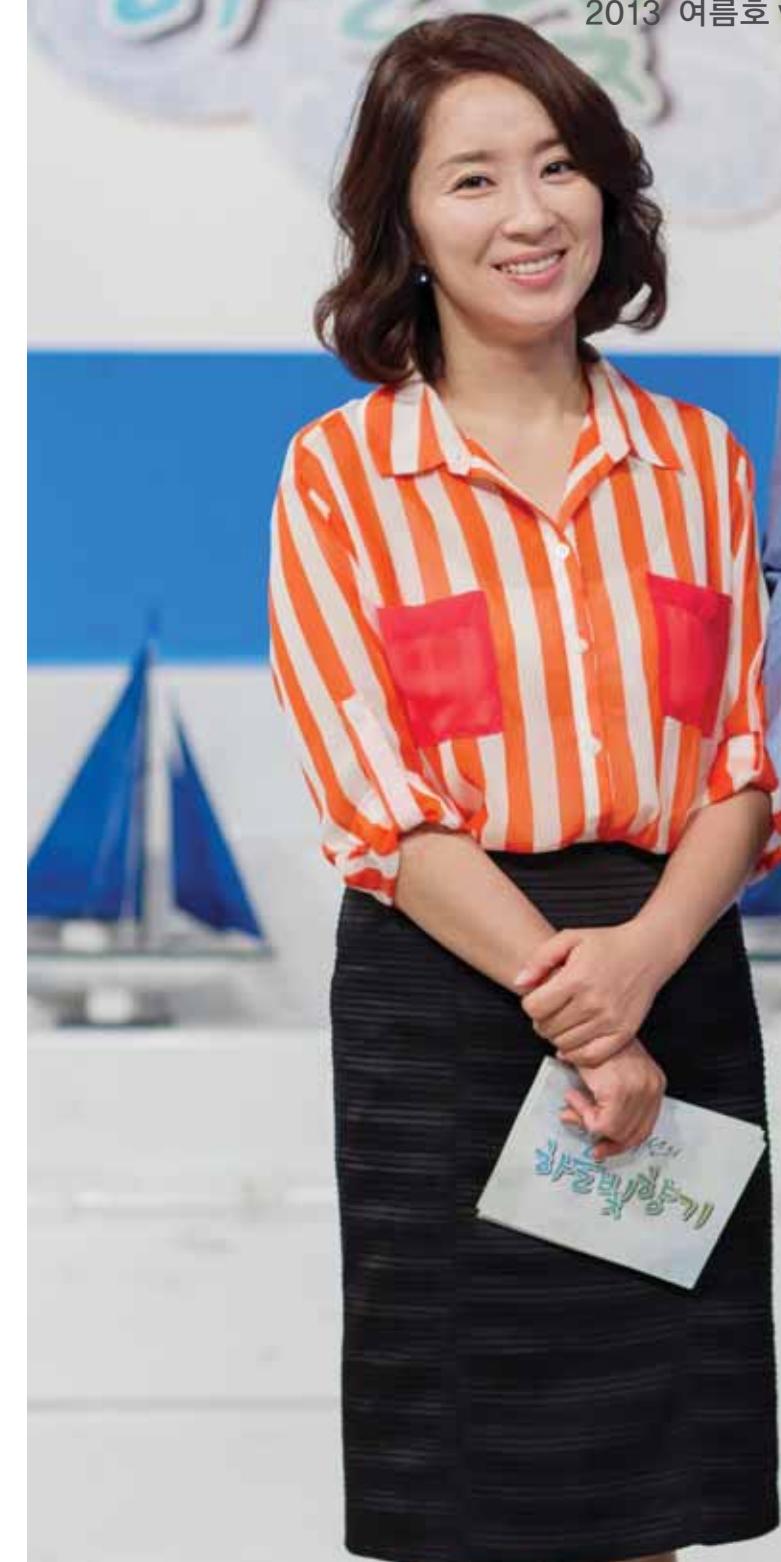


Magazine
CGN

2013 여름호 vol.1



www.cgntv.net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85-4 CGNTV
T.02-796-9800 F.02-749-6638



지구촌 희망의 시작

Christian Global Network CGNTV

CGNTV는 풍성한 기독교 콘텐츠와 지구촌 감동 스토리로 세상에 행복을 전합니다.

지구촌 어디서나 24시간 방송되는, 글로벌 크리스천 방송의 중심!

CGNTV는 위성, 인터넷, 케이블, IP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채널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www.cgntv.net



· 시청문의 02)796-1118 / · 후원문의 02)796-2243

CONTENTS

2013 여름호 vol.1



선교지 필리핀 땅오스 지역 아이들.

Mission

- 02 프롤로그 CGNTV 유재건 대표이사
- 04 특별대담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
- 06 선교에세이 일본CGNTV 김창호 국장
- 08 선교지의 아침 필리핀 땅오스 임문희 선교사
- 10 CGN스토리 직원 아웃리치, 선교 십일조 프로젝트

Program

- 14 커버스토리 〈하늘빛항기〉 진행자 강석우, 윤유선
- 18 인터뷰 토크콘서트 〈힐링유〉 MC 박지윤, 장희웅
- 22 토크 인 토크 가수 소향
- 26 제작후기 특집다큐멘터리 〈은혜의 강 아마존〉 오성환 PD
- 29 현장스케치 〈충성! 은혜로軍〉 충북 괴산 각개전투 현장
- 32 CGN스페셜 맞춤특강 〈나침반〉 박수웅 장로 ‘성경적인 배우자 찾기’
- 34 CGN초이스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바이블 Q&A〉

News

- 36 CGN뉴스_해외 미국, 일본, 태국, 아랍, 중문
- 40 CGN뉴스_국내
- 42 편성표

Support

- 44 CGN가족 법무법인 산지 이은경 변호사
- 46 후원스토리 후원자 안애경, 황혜정
- 47 후원안내

Magazine CGN

Magazine CGN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3년 6월 29일(통권 제1호)
발행처 CGNTV (www.cgntv.net 02-796-9800)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85-4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 표 유재건
편집인 김경훈 합태경
기 획 CGNTV 기획홍보팀
진행/편집 정원이 조인애
글 조인애
사 진 염기원
디자인 페이지원(02-757-3111)
인쇄 페이지원



거울이 되는 꿈

유재건 CGNTV 대표이사

‘CGNTV의 역할은 무엇일까?’ 자문해봅니다.

답은 응당 ‘방송을 통한 선교’입니다.

즉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실제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참 다양합니다.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대신해 선교의 땅으로 떠나고
지사들 중엔 NGO를 설립해 현지를 돋기도 합니다.

기업인이 된 한 유학생과 병상에 누워있던 환우,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 목회자가 없는 교회 등
CGN 방송은 우리가 채 몰랐던 어느 골방에도 있었습니다.

결국 CGNTV의 역할은
거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을 비추는 것.

A W 토저 목사는 그의 책 「GOD」에
하나님의 성품 중 한가지인
무한성에 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측정되거나 측량될 수 없으시다.
우리는 시간, 공간 또는 거리를 그분께 적용할 수 없는데,
그분이 이것들을 모두 만들고
그분의 마음 안에 품고 계시기 때문이다.”

CGNTV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품고 계신 땅에 잘 닿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잘 비추어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지금도 잘 전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CGNTV는 하나님의 꿈

선교지를 위해
전 방위적으로 섬기는 방송
CGNTV 8주년,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 제언

CGNTV는 2005년 3월 개국 이후, 국내외 선교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8년을 달려왔다. CGNTV는 개국 당시 '전 세계 2만 4천 한인선교사, 850만 해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품는 사명'을 갖고 첫 발을 뗐다.

지난 8주년을 돌아보며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를 통해 CGNTV의 현주소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진행 함태경 CGNTV 경영기획본부장

CGNTV가 8주년을 맞았습니다. 가장 큰 의의를 짚어본다면.

- CGNTV는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자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현재 전 세계 174개국 5개 위성을 통해 한국어, 영어, 일어 등 다국어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지사까지 130여 명의 직원들이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채널에 필요한 24시간 365일 방송분량을 직접 제작, 편집, 송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지역에서 케이블, IPTV, 스마트폰을 통해 약 1천만 명의 시청구구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150개국이 넘는 곳에서 매일 CGNTV를 시청하고 있

구요. 명실상부한 크리스천 글로벌 네트워크 방송이라는 초석이 마련된 셈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 후원자들의 도움의 결과입니다.

CGNTV에 대한 선교 현지의 실제 반응은 어떤지요.

-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일본, 대만의 목사님들은 교단 교파를 초월해 CGNTV에 등장하는 목회자들의 설교와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설교와 목회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평소 교제와 왕래가 없었던 다른 교단, 교파 목회자들 간의 일치



와 연합이 CGNTV가 가는 곳마다 이뤄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오곤 합니다. 이런 게 온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비전을 가진 CGNTV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죠.

CGNTV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과 기능, 즉 소명은 무엇일까요.

- 먼저, 한국교회가 보다 건강한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도 록 돋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CGNTV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선교사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간 지 3년이 지나면 많은 선교사들이 영적 고갈 현상에 빠진다고 합니다. CGNTV는 선교사들의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처가 돼야 합니다. 또 그분들의 사역과 활동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CGNTV와 같이 현지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24시간 맞춤 방송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선교지 교회가 스스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 방위적인 '도우미'가 돼야 합니다.

CGNTV는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워낙 사역이 방대하다보니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없이 거의 100%를 후원자

들의 현금에 의존하다보니 사실 어려움이 적잖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프로그램을 매개로 CGNTV 설립정신이 오염되는 현금을 요청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셨는지 CGNTV는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재정이 부족해 제작이나 송출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필요할 때마다 너무도 귀한 헌신자들을 보내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해외지사와 제작센터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CGNTV의 순수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후원자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CGNTV 시청자, 후원자들, CGNTV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 저는 개인적으로 CGNTV를 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꿈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자라난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CGN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소중한 현금을 아낌없이 방송선교를 위해 보내주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는 130여 명 CGNTV 직원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CGNTV는 여러분들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사역에 저도 기쁨으로 더 많이, 더 깊이 동참하겠습니다.



◀ 지난 3월 방영된 동일본 대지진 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현장. 사진은 대지진 당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 다량의 방사능에 피폭된 후쿠시마 지역.

▼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토마리하마 지역 아웃리치 현장. 이 지역은 대지진 당시 쓰나미가 훨씬고 간 곳이다. 일본CGNTV는 아가페CGN과 협력해 일본 재난현장마다 함께 하고 있다.



“일본교회에 생명을 공급하는 심장처럼”

일본지사 김창호 국장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일본선교는 어렵다’, ‘일본 교회는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좀처럼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실제로 일본의 복음화 비율은 0.3% 정도이다. 그나마 있는 교회들도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로 바뀌는 추세다.

일본CGNTV는 지난 2006년 10월 이러한 영적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이곳에 터를 잡았다. 그리고 이듬해 첫 번째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를 시작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목회자들조차 선교방송이 무엇인지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서 CGNTV 리더십들은 47개 현전 지역을 돌며 복음방송사역에 대해 일일이 설명했다. 그 결과 CGNTV와 협력 목회자들이 지역별로 모이기 시작했고, 어느 새 그들은 러브소나타를 준비하는 핵심 주역들이 됐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기적이었다. 달혔던 문이 열리고 벽이 허물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곳 관계자들은 ‘CGNTV와 러브소나타’를 이제 일본 선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역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CGNTV가 없는 일본교회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시간이 갈수록 일본교회와 연합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CGNTV가 하나님, 복음, 그리고 일본교회의 부흥을 위한

곳마다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CGNTV가 일본교회가 연합하는 데 앞으로 더욱 튼튼한 가교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손바닥 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도한다면, 또한 더욱 겸손하게 섬겨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큰 기적의 비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는다.

비록 이곳이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있기에 은혜요 감사의 자리다.

일본CGNTV는 일본교회에 생명을 공급하는 심장처럼 오늘도 힘차게 뛰고 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곳, 땅오스에서

“고국과 함께, 아침마다 새로운 힘으로…”

선교지 속 CGNTV, 필리핀 땅오스 임문희 선교사

CGNTV가 방송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났다. 선교지 곳곳에 등을 켜는 심정으로 설치한 위성 안테나 숫자만도 6500여 대에 달한다. 말씀과 기도로 보내는 후방지원이 선교지에서 어떤 힘이 되고 있을까? CGNTV와 함께하는 선교지의 풍경을 따라가본다.



임문희·황선미 부부는 필리핀 땅오스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다. 땅오스는 필리핀의 5대 빈민가 중 하나인 바다 위의 빈민촌. 사람들은 대부분 물 위로 1.5m 높이에 있는 수상 가옥에 거주하고 있다. 구정물과 쓰레기 위가 아이들의 놀이터인 곳이다.

임 선교사는 10여 년 전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다. 당시 한 목회자의 제안으로 이곳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당시 그는 안식년 없이 13년 간 달려온 사역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땅오스 사역엔 뜻이 없었다.

그런데 그곳 수상 가옥 다리 위에서 ‘발자국’ 하나를 보았다. 밖으로 향하는 것들 속에 유일하게 안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임 선교사는 그때 “너는 이곳이 싫고 더러워서 나가도 나는 이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강한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 10여 년을 이곳에 있다고 고백했다.

두 선교사의 주요 사역은 땅오스 빈민들을 돌아보는 것과 현지인을 훈련하는 것이다. 병들고 굶주린 이들이 많기에 부부는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현재 그들이 기도 중인 사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학생 1200명 매일 급식’, ‘두 곳의 초등학교에서 진행될 방과 후 교실(음악, 미술, 태권도, 컴퓨터) 사역’, ‘건립 중인 시립 병원에 실명예방 안과 설립(진행 중)’ 등이다. 또한 현지 선교후보생 훈련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재정과 후보생 발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임 선교사에게 “CGNTV는 현재 사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물었다. 그는 “고국을 떠난 지 20년이 넘어 여러 가지로 고립되기 쉬운데, 한국의 문화와 사역문화를 채우고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한 “영어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훈련에 사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CGN 영어 프로그램 애청자다. 개인의 영성 개발이나 묵상생활에 도움을 받고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고하기도 한다. 그래서 세계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조명하는 프로그램〈독수리5형제〉와 함께, 묵상이나 예배프로그램 〈Living Life〉, 〈The Bible〉, 〈English Worship Service〉는 그에겐 믿음의 벗 같은 프로그램들이다.

선교사 부부는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숨쉬기도 힘들 만큼 냄새가 고약한 빈민촌을 돌고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써주시기에 행복한 선교사”라고 말한다. “새 아침이 되면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혼 사랑하는데 힘쓴다”고 한다.

임 선교사에게 “CGNTV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묻자, “선교사들의 부모를 찾아가 자녀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엄청난 감동이 나오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아마도 이 마음은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의 마음 한 커니 아닐까 싶다.

* 임문희 선교사의 사역 모습은 CGNTV〈독수리5형제〉(63편)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그들만의 여름나기 CGNTV 직원 아웃리치

CGNTV 직원들의 여름은 특별하다. 100여 명의 직원들이 CGNTV가 방송되는 지구촌 곳곳을 직접 찾아 나서는 것. ‘선교지를 향한 방송’을 위해 현지와 직접 호흡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CGNTV 전 직원들은 올해도 지난 5월 11일 ‘아웃리치 발대예배’를 갖고, 여름사역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시작은 7월 초 태국부터이다. 매년 준비하는 그들만의 여름나기. 그 준비 과정을 담았다.



■ 사진은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난 해 러시아 아웃리치 당시 방문한 폐름주 알콜·마약 중독센터. 아래는 인도 델리 갈레간 지역 급식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과 올해 아웃리치 대만 팀. 원편은 지난 해 직원들이 러시아에서 직접 안테나를 달고 있는 모습이다.

■ 나에서 팀, 그리고 선교지

‘2013년 CGNTV 직원 아웃리치’를 위해 총 100여 명이 움직인다. 먼저 각자가 간추려진 주요 사역지 중에서 직접밟을 나라를 꿈꾸고 선정한다.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 태국을 선택한 한 직원은 “태국이 소수민족을 향한 선교가 활발한 곳이어서 선정하게 됐다”며 단기 선교에 초점을 맞췄다. 또 지구촌 땅을 밟고, 그곳을 아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이들도 있다. ‘나’에서 시작된 이런 과정이 끝나면 직원들은 곧 팀 체재에 들어간다. 정기적인 큐티 모임을 갖고, 성경 말씀 아래 마음을 모으며, 현지 상황을 파악하거나 구체적인 활동 동선을 짠다. 이번 여름 그들이 방문할 곳은 국내를 포함해 총 8개 국. 즉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네팔, 러시아, 요르단이다. 총 12팀이 꾸려졌고, 7월 초 태국 치앙마이로 향하는 태국팀을 시작으로 국가별 사역 릴레이가 시작된다.

■ 지구촌이 한 주파수를 향하도록

그들이 할 핵심 사역은 현지 선교사들과 교회들에 직접 CGNTV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주는 일이다. 선교사가 안테나를 통해 더 많은 영적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다. 영적 불모지일수록 이 일에 대해 “마른 영혼에 생수를 공급받는





일”이란 반응을 전해온다.

이밖에 각 팀들은 현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고, CGN 카메라를 통해 현지의 생생한 현장을 담는다. 그 영상들은 이후에 또 다른 선교지를 위한 미디어 자산이 된다. 사전 준비 과정에서 국가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역을 계획하는 팀들도 있다. 요르단 팀의 경우, 성지와 난민 캠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 큰 꿈은 작은 기적들로부터

직원 아웃리치가 어느덧 8년, 올해로 아홉 번째 진행된다. 매년 100여 명이 움직였고, 방문한 곳도 백 여 곳에 달한다. 그동안 선교지는 위성 안테나를 통해 고국, 그리고 말씀과 연결되는 통로를 찾았고, 직원들은 1주일 여의 여정을

통해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각자의 영적 추억을 갖고 돌아왔다.

7년간 6개국을 다녀온 한 직원은 설치 작업 도중, 교통사정 때문에 일행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발이 묶여 있는 동안, 갑작스레 여러 선교사들에게 AS 의뢰를 받게 돼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던 일화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아웃리치가 자신에게 준 의미에 대해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올해도 그들이 새롭게 밟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 족적이 남길 일들이 궁금하다.

방송선교의 실제를 위해

CGNTV 선교 십일조 프로젝트

선교 사명을 위한 CGNTV의 생각이 방송 이외에도 여러 각도로 실행되고 있다. 개국과 더불어 ‘직원 아웃리치’를 시작한 것에 이어 올해부터 ‘선교 십일조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이다.

개국 8주년을 맞아 첫 테이프를 끊은 ‘선교 십일조 프로젝트’는 매년 직원의 10%를 선교 현지로 파송하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초 130여 명의 직원들 중 11명의 지원자를 받고,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의 첫 혼신자가 선발됐다.

선발된 4명 직원들은 대부분 CGNTV에서 다년간 근무한 직원들이다. 선교를 위한 방송사의 비전과 함께 하며 각자의 소명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이다. 선발된 기술국 윤영준 국장은 “입사 1년차 시절, 세계선교를 향한 방송국의 비전을 보며, 전문인 선교사의 소망을 가졌다”고 전했다. 제

작팀 이철원 PD도 “방송을 보고 힘을 얻는 선교사들과 해외 여러 지역 교회에서 오는 감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개인 간증의 연장선에서 적기를 만난 지원자들도 있었다. 경영기획국 박재웅 국장은 백혈병 어린이에게 골수를 기증한 기억을 들어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편성기획팀 박미진 사원도 “선교에 대한 생각이 혼신, 희생, 죽음에서 기쁨, 축복, 영생임을 깨달았다”며 지원 동기를 밝혔다.

선발된 4명은 지난 3월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OPMS(온누리전문인선교훈련) 등을 통해 전문인 선교사 양성과정을 밟고 언어훈련을 병행하며 파송을 기다리고 있다.

‘하늘빛’으로 물든 향기, 8년 그 이야기 테이블에서

진행자 강석우, 윤유선



CGNTV에는 8년을 한결같이 향기가 가득한 이야기 샘이 있다. 바로 토크쇼 <하늘빛향기>. 시간의 더께만큼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였고, 그것들을 통해 ‘하늘빛향기’라는 특별한 분위기를 만든 프로그램이다. <하늘빛향기> 8년. 여전히 진행형인 시점에서 ‘하늘빛’ 채색에 큰 축을 담당하는 진행자 강석우, 윤유선 씨를 만났다.

준비된 진행자 강석우

인터뷰는 녹화 전 오후 2시경 진행됐다. 그는 이미 4시간 가량 타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을 녹음하고 온 상태였다. 대기실에는 프로그램 견학차 온 여고생들도 있었다. 당일 출연자 최웅섭 선교사(아제르바이잔, 비즈니스 선교사)도 녹화 20분 전 대기실에 와 있었다.

인터뷰 전 그는 여고생들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건넸다. 서산에서 온 학생들이었는데, 그는 자신과 서산의 인연을 말하며 여고생들과 금새 친분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최웅섭 선교사의 첫 대면도 비슷해 보였다. 그는 출연 전 긴장한 듯한 선교사에게 편한 미소를 지으며 수인사를 나눈 후, 따듯한 이웃처럼 소소한 것들을 물었다. 대화의 물꼬는 녹화 전에 이미 튼 것 같았다.

<하늘빛향기>는 2011년 강석우 씨가 진행을 맡으면서 초대 손님 층이 한층 폭넓어졌다. 문화예술인들 중심에서 각계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 범위가 넓어지고 연령층도 다양해진 것. 강석우 씨의 오랜 진행 경험, 연륜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이런 그의 강점을 알아본 것은 온누리교회의 담임목사이자 CGNTV의 이사장이었던 고(故)하용조 목사였다. 강 씨는 하 목사의 제안으로 <하늘빛향기>를 진행하게 됐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어느 날, 목사님께 인사를 하는데, 날 좀 도와줘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예, 도와드려야죠. 했죠. 그게 <하늘빛향기>였어요. 연령층도 높이고, 계층도 다양화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을 알렸으면 좋겠다고 하셨지요”

그런 그의 첫 초대 손님은 다름 아닌 하용조 목사였다. 강 씨는 서로를 초대한 두 사람의 첫 번째 자리를 가장 기억에 남는 회 차로 추억했다. 또한 “하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 등을 더 남기지 못해 아쉬웠다”고도 말하며, “많은 출연자들을 만나다보면, 4, 50분은 참 짧은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강 씨는 진행자이기에 앞서 중견배우로서 입지가 강한 사람이다. 어찌 보면 토크쇼 진행자는 주인공이었던 그의 인생에서 또 다른 역할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듣다보면 깨닫는 게 많다고 한다. 또 진행자의 자리에 관해 ‘훈련과 연단’의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가 라디오나 토크쇼를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죠. 잘난 척 많이 하는 배우로서 존재할 줄 알았지. 제 삶도 그렇고 <하늘빛향기> 출연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훈련시켜 쓰십니다. 이 자리도 누구나 느닷없이 나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프로그램은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향기와 느낌이 다르지요”

그는 하 목사에게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한 가지 더 부탁받은 일이 있다고 했다. “최근 연예인들의 자살이 많은데 강석우 씨가 막아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 일은 그가 다 손을 뻗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문제에 대해 함께 힘써달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럴 법한 처지의 후배들을 보면 자주 만나고 이야기도 나눈다고 한다.

그에겐 프로그램과 일상이 보이지 않게 연결된 것이다. 많은 이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는 그. 그리고 그런 저런 인생들을 몸소 연기하고 있는 그. 〈하늘빛향기〉는 그런 그가 있어 매주 누구나 편히 그들의 응접실에 함께할 수 있다.

한결같은 향기 윤유선

윤유선 씨와의 인터뷰 전, 강 씨에게 그녀와 호흡이 잘 맞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는 워낙 착한 분이고, 나는 잘 맞추는 사람이어서 함께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또 “우린 각자가 아니라 하나의 개성이 되어야 하는데 잘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중 그녀의 모습은 그가 말한 대로 편안했다. 인터뷰 당일 드라마 밤샘 촬영을 마치고, 점심도 거른 채 녹화장으로 달려온 상태였다. 피곤하거나 분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로 진행된 인터뷰는 식탁 위 대화처럼 자연스럽고 순조로웠다. 긴 수식 없이 주고 받으며.

그녀가 〈하늘빛향기〉와 함께하게 된 것도 한 목사의 제안이었다. 그녀는 제안에 바로 수긍했다고 답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좋은 거니까요. 좋은 분들 통해 제가 더 은혜받고 있구요. 저 시키시는 거 잘해요. 그동

안 저도 CGNTV 프로그램 통해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저를 써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에게 은혜 받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는 응당 있을 곳 같았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소명이나 비전은 무엇일까 물었다. 그녀는 그것의 설계는 자신의 몫으로 두지 않았다.

“제 삶의 여러 가지 길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길이 열리고 가능한 것 같아요. 연기든, 육아든 하나님께서도 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기회를 주셔서 하는 거고. 아이들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기도하면서 더 내려놓게 돼요.”

그녀가 그리는 〈하늘빛향기〉의 진행자는 시청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있다는 것. 그들의 입장이 되어 출연진들에게 묻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녹화하는 동안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 그만큼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것이다. 일화로 그녀는 할렐루야 캠페인 일덕 항공 선교사가 출연했을 당시, 친정 부모님들이 편찮으셨는데 그의 이야기를 통해 치유받는 것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또 그녀는 녹화가 끝나면, 가족들, 특히 6학년, 4학년인 두 아이에게 출연자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해주기도 한다.

인터뷰 당일, 그녀는 파트너 강 씨가 준비해 준 충무김밥으로 끼니를 대신했다. 식사를 하며 선배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인터뷰를 마친 뒤 녹화 큐싸인이 들어갈 때까지 그녀는 TV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 단아하고 친근한 느낌을 전했다. 〈하늘빛향기〉는 그런 그녀가 함께 해 더 향기로운 듯하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 힐링유 *Healing YOU*



아나운서 박지윤과 탤런트 장희웅이 토크콘서트 <힐링유>의 진행자로 무대에 섰다. 두 사람은 개성도 직업도 확연히다르지만 ‘관객의 마음으로’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시청자들을 ‘힐링’으로 안내한다.

<힐링유>를 진행하게 되신 계기는.

박지윤(이하 박) CGNTV 출연을 결정할 땐 저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전 이 자리를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섬김엔 기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시작해요. <클래식 갤러리>(CGNTV)도 그렇게 하게 됐고. 하는 동안 좋고 기뻤어요. <힐링유>도 그 때와 같은 마음이라 시작했어요.

장희웅(이하 장) 처음엔 왜 나에게 연락이 왔나 궁금했어요. 담당PD가 <하늘빛향기> 출연 때나 최근 <마의>(MBC) 출연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동참했어요.

장희웅씨는 MC가 처음이신데 어떠세요.

장 어려워요. 원래 말을 잘 안하는 성격이라서. 박지윤 아나운서가 워낙 베테랑이니까 옆에서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매회 ‘오늘도 무사히’라고 해요.(웃음) 아직은 초보다 보니 어색하기도 하고 성에 안 차요. 훌러가는 데로 부드럽게 하려 하는데…

요즘 ‘힐링’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힐링유>가 주는 치유는 무엇일까요.

박 저는 교회나 공동체에 속해 많은 이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며 자주 희망을 얻어요. 제 문제에 답을 얻기도 하고. 시청자들도 회 차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출연진들과 만나시다보면 누군가 한번쯤은 내 인생의 고민이나 아픔, 부족한 부분을 건드려 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가 힐링이겠죠.

장 진행자로서 제가 힐링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 안에서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출연진들마다 스토리가 있고 배울 점이 있거든요. 지윤 누나에게 배우는 면도 있고. 먼저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박 희웅 씨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진행자라기보다는 객석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러움이 묻어날 수 있거든요. 그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희웅 씨는 남자고 결혼을 안했고. 저랑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조화롭지 않을까 싶어요.



출연자 분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박 저는 문단열 선생님이 떠올라요. 인생의 고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밝아보이셨는데, 그런 면을 나눠주시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와 닿았어요. 저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때, 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을 통해 제게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면이 시청자들에게도 언젠가 한 번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순간을 접하신다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사는 것이겠죠.

박 장희웅씨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씨가 나오셨을 때 설 명해주셨던 악기를 직접 사기도 하셨더라구요. 그 때 아! 이 사람 뭐든지 열심히 하는구나 싶었어요.(웃음)

장 소리가 너무 예뻐서 갖고 싶더라고요. 따로 밥도 먹었어요. 악기 레슨도 해주셨구요. 그리고 윤학렬 감독도 기억에 남아요. 그분의 인생스토리나 영화 <철가방 우수 씨> 스토리도 감동이었어요. 영화를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가 자극이 됐어요.

박지윤 씨는 다른 방송도 많이 하셨는데, CGN 방송이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신지.

박 저마다 소명과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제게 부어주신 달란트라면 방송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 CGNTV는 제가 섬기는 가장 좋은 장이겠죠.

두 분의 신앙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장 전 유치원 때부터 평창동 예능교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처음 새벽기도를 갔었는데, 강하게 원하는 것이 생기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게 되었지요. 응답도 받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박 저는 모태신앙 이에요. 둘째 딸인데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 전도를 받으셨네요. 대학 때는 한동안 교회도 안 나가며 신앙적 방황을 했는데, 청년부 목사님께서 언니와 동생에게 지윤이 데려오라고 지령을 내리셔서 아웃리치를 가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뜨겁게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가 터닝포인트가 됐죠.

남편(최동석 KBS 아나운서)은 어떠세요.

박 저희는 첫 데이트 장소가 교회였어요. 토요일 날, 남편이 “내가 다니는 교회 갈래?” 해서 남편이 다니던 온누

리교회 간 것이 저희의 첫 데이트였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믿음이 좋은 시부모님 만나고, 남편하고 신앙적인 얘기도 하게 됐죠. 요즘은 박나림 아나운서의 제안으로 성경공부(하미모-여성 배우, 방송인 등이 함께하는 소그룹 모임)도 참여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와 나눔도 하고 있어요.

진행자로써 특별히 하고 싶은 프로가 있으신지요.

박 저는 주어지는 것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카메라에 불이 켜지고 제가 그 안에서 이야기 하는 순간이 좋고 그 앞에 서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힐링이에요.

장희웅 씨는 어떤 연기가 하고 싶으세요.

장 멜로. 주로 무사 같은 역할들을 많이 해서. 그리고 제가 주로 라디오를 듣고 자랐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라디오DJ나 다큐멘터리 나래이션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전 무대가 좋아요. 뮤지컬 선교공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늘 새기는 성경 말씀이 있으실까요.

박 빌립보서 1장 9~10절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

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옳은 분별력을 갖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작품할 때 윤복희 선생님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가르쳐주셨어요.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연기도 선교를 위해 하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을 구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힘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한 말씀을 한다면.

박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통해 자신을 위한 한 마디 한 문장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분들도 종교적 선입견을 떠나 많이 보시고 기쁨과 힐링을 얻으면 좋겠어요. <힐링유>를 통해 삶이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노래하는 꿈으로

가수 ‘소향’의 노래와 이야기

가수 소향이 CGNTV 토크콘서트 〈힐링유〉를 찾았다. 그녀에게 집중하는 관객들 앞에서 그녀는 늘 하던 것처럼 노래하고, 자신의 생각과 삶을 소탈하게 이야기했다. ‘자신과 관객들의 영혼을 깨우리라’고 다짐하는 듯한, 그녀만의 데시벨은 이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노래의 이유가 되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녀 특유의 힘박웃음과 함께 이어갔다. 1시간 여 그녀의 노래와 고백, CCM가수에서 전면 대중 앞에 나서며 가졌던 그녀의 속마음, 그리고 인간 김소향의 소소한 꿈까지. 그녀가 이야기했던 시간을 지면에 옮겼다.

소향의 고백 1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중 앞에 나서며 그녀는 ‘감동을 주는 노래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한 회 한 회 그 숙제에 도전해가며 그녀는 노래 이외에도 “크리스천인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주기보다 생각과 관념들을 강요했던 것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 후 그녀는 다시 한번 ‘희망, 꿈’을 노래해야겠다는 각오를 달리했다. 사랑을 전제로 하는 꿈.

“나만의 꿈을 위해 산다. 정말 시시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것을 해서, 이것을 통해 더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나고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 예쁜 세상을 만들어 놓기를 꿈꿔요”

데뷔 후 15년을 활동한 그녀의 발자취가 그 꿈, 그 기도의 한 페이지이기도 하다.

“15년 전에 제가 스무 살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다녔어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할 겁니다. 노래할 거에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전 세계 50개국을 넘게 다녔어요”

“그 때 공연을 하며 달拉斯에서 19살 어떤 여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콘서트가 끝나고 우리 집에 와서 꼭 함께 식사해달라고 간청을 하셨어요. 함께 식사하는 중에 그분이 말하기를 그분이 작년에도 제 콘서트에 왔는데 자살을 생각 중이셨대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 그런데 콘서트 이후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지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자신이 TV에 나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많은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했다.



〈힐링유〉와의 토크

결혼을 굉장히 일찍하셨어요.

-19살 때 별명이 예수쟁이였어요. 기도를 하면서 어렵잖이 이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당시 남편이 제 첫 번째 남자친구였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20세)에 결정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였죠. 근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2~3개월 후에 제게 자궁암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전 결혼을 안 했더라면 죽었죠. 암이라는 게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정말 감사하게 됐죠.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거구나 싶었어요. 희생양이 되어 준 제 남편에게 감사할 뿐입니다.(웃음)

소향 씨에게 노래 이외에도 또 다른 꿈이 있다고 들었어요.

- 소설을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반으로 한 판타지 소설이에요. 시리즈로 낼 계획인데 지금 1권을 출판사에 맡겼어요. 사실 이 소설을 내기 전에 시나리오를 먼저 쓰려고 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영화화를 십 몇 년 전부터 꿈꾸고 있었거든요. 이걸 판타지로 만들면 정말 멋있을텐데 하면서. OST도 생각해놓고 있어요. 감독은 마이클 베이(트랜스포머, 진주만, 아일랜드 등 다수). 반드시 그분을 섭외할 겁니다.(웃음)

타고난 재능으로 순탄한 길을 걸어오셨을 것 같아요.

- 가장 힘든 싸움의 대상은 저였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예수님이란 분을 몰랐으면 나는 참 악독한 사람이 됐겠구나. 제 안에 있는 제가 굉장히 욕심덩어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남들은 못 보는 싸움인거죠. 분명히 인생 중에도 제가 더 큰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가려고 하면 막혀있기도 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반항도 하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얘기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보게 되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중에서

소향의 고백 2

사랑하는 삶을 꿈꾸는 그녀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스포스 3집)로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담은 고백을 갈음했다.

"저는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끔씩 참 많이 울어요. 왜냐면 사실 가장 큰 꿈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사랑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그 꿈에 대한 아주 혹독한 대가가 십자가였고, 죽음이었거든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제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봤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사랑에 깊이 미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해요. 이 노래는 그분에 대한 저의 사랑이 가장 많이 담겨진 곡이에요. 이 노래를 하면서 저는 연약하고 뭇났지만 그분이 가셨던 길을 조금이라도 걸어가 볼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긴 여정

‘아마존’ 15일, 그 전후에



● 제작 착수_ ‘혹시 아마존에도 CGNTV를 보는 선교사가 있을까?’

<은혜의 강 아마존>을 제작하기 위해 브라질을 찾은 것은 지난 2012년 가을의 끝자락이었다. 적도를 관통하는 열대밀림, 온갖 독충과 아나콘다가 즐비하다는 녹색지옥. 등을 떠밀어도 절대 가지 않을 것 같던 그곳을 굳이 가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혹시 아마존에도 CGNTV를 보는 선교사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아마존에서 20년 동안 인디오 원주민 사역을 한 허운석 선교사는 국내에 폐암치료를 위해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락을 하게 됐다. 남편인 김철기 선교사는 여전히 아마존에서 홀로 사역중이었는데, 문득 그의 지나온 20년 세월과 그곳에는 어떤 영혼들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아마존 여정에 착수했다.



● 촬영 준비 1_ 만만치 않은 가족들의 염려

촬영을 준비하며 아마존에 대해 알아볼수록 그곳을 수식하는 말들은 무시무시한 것들뿐이었다. 특별히 이번 아마존 스탭은 연출PD 2명과 카메라감독 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혼이었다. 그렇기에 배우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지만, 주위 사람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 촬영 준비 2_ 선교사의 냉대

실제에 들어가니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사 섭외였는데, 촬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허 선교사와는 달리 현지 촬영을 함께해 줄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의 반응이 차가웠다. 사역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방송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강했다.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들과 접촉했지만 이렇게 냉대하며 거부한 이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난처했다.

김 선교사의 사정도 이해는 됐다. 한국의 공중파 뿐 아니라 전 세계 방송국에서 불법적으로 진행한 촬영 때문에 그간 아마존의 피해가 만만치 않았고, 이들을 돌보는 선교사역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촬영도 중요하지만 선교지를 곤란하게 하면서까지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 고심 끝에 촬영을 접으려했다. 하지만 암투병중이었던 허 선교사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함께 기도하며 진행해보자고 독려했고 하루하루 말씀을 나누며 사람의 힘이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리자며 힘을 실어주었다. 아마존의 김 선교사의 반대가 심해질수

록 한국에 있는 허 선교사의 기도와 부탁도 계속됐고, 일주일간 수십 통의 메일과 전화 연락 끝에 결국 아마존의 문이 열리게 됐다.

● 출발_ 영적공격의 연속 그리고…

출발 전 주변에서 걱정했던 것은 독충과 말라리아, 밀림의 야생동물이 위험하지 않을까였다. TV에서 본 아마존은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정말 힘들었던 것은 끊임없는 영적공격이었다. 그동안 <독수리5형제>(CGNTV) 같은 해외선교지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온갖 오지를 다녔지만, 이번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졌다. 티켓팅한 좌석이 1차 환승지역으로 가는 도중 이름이 변경돼 좌석이 취소됐고, 2차 환승지역에서는 하루 차이로 숙소에 무장 강도가 들어 카메라 장비뿐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뻔한 위기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아마존에 도착해서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승무원의 실수로 고가의 카메라 장비가 든 캐리어를 내리지 않아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었다. 워낙 시골지역이어서 영어도 통하지 않고 선교사 이외에는 의지할 곳도 없는 길이었지만 연속되는 사고 가운데도 이상하리 만큼 마음이 평온했다. 기도하며 성경을 보던 중에 사도행전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말씀을 보게 됐다. 가다 서다를 반복했지만 놀랍게도 가야할 곳과 만나야할 사람은 모두 넘치게 보았고 아마존을 향한 행군은 계속 되었다.

군종들의 각개전투

<충성! 은혜로軍>팀의 촬영현장스케치

“군대는 선교지 같다.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가 있다. 현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생활 전반에 적응해야 한다.” <충성! 은혜로軍>PD의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어느 곳 못지않게 목마른 영혼들이 많은 곳이다. <충성! 은혜로軍>은 또 하나의 세상, 군대 속 선교현장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주에도 <충성…>팀은 어김없이 그 현장 속에 뛰어들었다. 지난 5월 30일, 군종들의 ‘군인화 과정’을 촬영한 <충성…>팀도 그들과 더불어 각개전투에 참여했다.



● 아마존에서_ 선교사님과의 대화

아마존에 머문 지 6일째 되는 날, 아마존에는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는 짙은 비가 내렸다. 갑자기 내리며 강의 수위가 올라가 일찌감치 인디오 마을 안쪽에 정박했다. 땅볕에서 온종일 고된 사역을 하고 모두 깊이 잠들었을 때, 그물 침대 인 해먹에 누워 김 선교사와 두련두련 이야기를 나누었다.

“CGNTV는 어떤 곳인가? 너희는 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아직도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가?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당해도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겠는가?”

폭풍같이 쏟아지는 그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했다. 어느새 그의 음성이 부드럽게 녹아 있었다.

“선교사님!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던 적 없으세요? 여기는 많이 외로우실텐데. 게다가 사모님은 투병 중이시잖아요 많이 보고 싶을텐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가고 싶죠. 20년 동안 매일 밤이 그랬고 요즘은 더 갈망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마존 강에 많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군요. 참 바보 같다고. 몇 년을 공들여 한 명 전도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곳에 너무 오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선교는 삶이라고 그냥 이들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김철기 선교사. 그 밤은 선교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던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긴 날이었다.

● 여정의 끝_ 새로운 만남을 꿈꾸며

해질녘 아마존 강을 지나며 문득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한 사람이 생각났다. 비전을 선포할 때면 거침이 없었고 선교를 얘기할 때면 어린아이와 같았던, 고(故) 하용조 목사. 그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벼려야 할 것이 더 많다고 가르쳐 주었다.

아마존 김 선교사는 꼭 그와 같았다. 그는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가야한다” “온갓 독충에 물리고 배가 뒤집히더라도 나를 부르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삶을 던져야 한다”고.

그리고 그런 모습은 CGNTV와도 아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 한 명의 선교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살아나고 회복될 수만 있다면’이라는 생각에서 이 일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선교사의 마음을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 시작된 여행. 15일이라는 길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보내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 감추어진 이런 보석 같은 이들을 더욱 열심히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전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1



#2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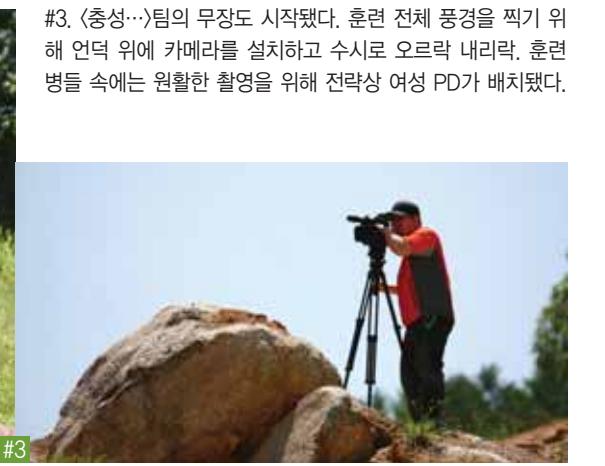
#3



#4



#4



#5



#8

#1. 충북 괴산군 학생군사학교. 지난 5월 30일 40여 명의 훈련병들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한창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제 갓 스무 살을 넘긴 이들은 모두 군종들이 되기 위해 모인 젊은 군목들. 개중엔 타 종교 훈련병들도 섞여있다. 그들은 이론 교육부터 5주간 여러 단계의 ‘군인화 과정’을 거쳐 군종이 된다.

#2. 이날 훈련은 모든 훈련의 꽃이자 군인화 과정의 핵심인 ‘각개전투’.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무장을 마친 그들은 서로의 얼굴에 칠까지 도와주며 전우애를 다지고, 오전 8시 장장 8시간 동안 진행될 훈련에 돌입했다. 그들의 하얀 치아만이 그들을 말해주는 전부.

#3. <충성…>팀의 무장도 시작됐다. 훈련 전체 풍경을 찍기 위해 언덕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훈련 병들 속에는 원활한 촬영을 위해 전략상 여성 PD가 배치됐다.



#7



#8

#5. 여성 PD도 낮은 포복을 시작했다. 어깨에 군장 대신 카메라를 얹고 앉았다가 더 숙이고, 급기야 포복 중인 훈련병과 같은 눈높이다.

#6. 휴식시간. 신부가 되려하는 한 지망생이 제작진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다. 게다가 꼭 ‘탱크보이’. 촬영 이후에 목사님 지망생들에게 혹 누가 될까봐, 제작진은 PX에도 없는 그것을 사기 위해 인근 마을까지 다녀왔다.

#7. 어디선가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빨간색, 노란색 연막탄이 터지고 실제 전투상황과 같은 훈련이 펼쳐졌다. 병사들도 바쁘고 제작진도 연막탄 속을 들락날락 병사들 찾기에 바쁘다.



#9

#9. <충성…> 팀은 한 달에 평균 15일 촬영을 나간다. 반은 더불어 훈련인 셈. 여성PD는 여군이 없는 곳에 가면 화장실도 없어 더욱 고생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군선교의 현주소를 함께 알아가며 그들을 위해 공감하고 협력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사진은 <충성…>팀의 안대성, 유진주 PD.

이 날 훈련을 받은 군사들은 6월 28일 임관식을 갖는다. 방송일은 7월 19일.



‘독신 탈출, 결혼 정복’ 성경적인 배우자 찾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결혼할까요?>의 저자 박수웅 장로는 자신의 책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입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많은 청년 남녀들이 이상적 배우자 찾기에 몰두한다. 하지만 그에 비해 결혼 시기는 늦어지는 추세다. 왜일까? 또한 크리스천 청년들은 이런 시류 속에서 어떤 지표를 가져야 할까?

CGNTV 맞춤특강 <나침반>은 박수웅 장로의 ‘성경적 배우자 찾기’ 강연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

생각과 마음, ‘나 돌아보기’

최근 교회 내 많은 청년들이 점점 결혼이 늦어집니다. 40세가 넘어 50세가 된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 결혼이 늦어질까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매스미디어의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이상형을 세우고 스펙 재산 직장 외모 이런 것들을 따져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처 때문입니다. 열등감, 거절감, 여러 가지 죄책감도 있습니다. 분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도 결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경우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이나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싸우는 거죠.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혼 자체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아름다운 삶의 모델을 보여줘야 합니다.

결혼이 뭡니까? ‘wed(결혼하다)’에 ‘ing(진행형)’이 붙어있습니다.

결국 결혼이란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서 완전을 향해가는 진행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이상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생활은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이상형을 만들어가는 진행형인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준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바탕으로 배우자를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정욕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우리 자녀의 배

우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이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또한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부생활 할 때 대화가 잘 통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네 가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방법 두 번째는 ‘찾는 것’입니다. 어디서 찾을까요? 가장 좋은 곳은 교회 청년부, 수련회, 단기선교 현장 등입니다. 단기선교를 몇 번 가보면 종종 결혼하는 커플이 생깁니다. 왜냐면 그곳에서 비로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땀 흘리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새로운 면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찾았다면 ‘두드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매력을 적극적인 자세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배우자를 찾았다면,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결혼식 자체에 너무 얹매이지 말고 오히려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격차이는 어떻게 다룰지,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성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독신을 탈출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세계관의 포로수용소를 탈출하고 결혼을 정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을 때에 좋은 배우자를 찾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침반> 박수웅 장로 편은
7월 8일 오전 11시, 오후 9시에 방송.

알찬 내용, 유쾌한 이야기

CGNTV 신규 프로그램



크리스천 CEO들의 진솔한 신앙 경영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크리스천 전문 경영인들과 만나는 토크 프로그램. 사회 리더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천 CEO들을 만나 그들만의 인생여정, 삶과 경영 철학 등을 들어본다. 3선 국회의원이자 현 CGNTV 대표인 유재건 장로가 진행을 맡아 출연진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테이블로 안내한다. 크리스천으로서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겪은 그들의 크고 작은 일화들이 잔잔한 감동과 함께 도전정신을 일깨운다.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전산 경험의 지혜를 전해준다.

▪ 방송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50분



* 위 방송들은 인터넷(www.cgntv.net)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CGNTV를 만나는 방법

케이블 – 채널703
IPTV – olleh G 채널237 SK B tv 채널554 LG U+ 채널183
위성 설치문의 – 02) 796-1118
모바일 – m.cgntv.net
인터넷 – www.cgntv.net

주의 어린이로! 즐겁게 쑥쑥!

〈나는야! 주의 어린이〉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즐거운 어린이 신앙교육 프로그램. 신동식 목사와 개그우먼 혀민이 진행하는 〈나는야…〉는 다채로운 코너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즐겁게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워십, 고민상담 코너, 주제가 있는 신앙 애니메이션, 생활 현장 속 신앙의 슈퍼키즈, 랩으로 익혀보는 성경말씀, 공작 등 다양한 코너가 펼쳐진다. 매주 펼쳐지는 알찬 코너들은 미자립 교회 및 선교지, 각 주일학교 콘텐츠로도 유용하다.

▪ 방송시간 매주 월, 수, 금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9시 50분

신앙의 의문 & 성경적 해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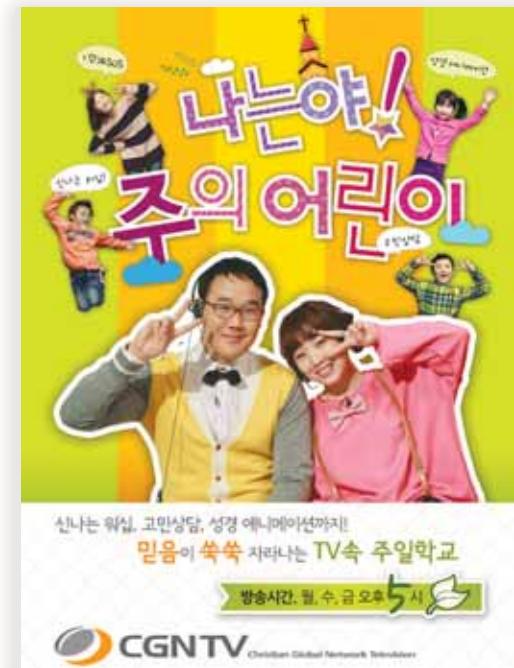
〈바이블 Q&A〉



하나님의 계시, 크리스천 생활의 길, 성경. 〈바이블 Q&A〉는 크리스천들이 품고 있는 신앙적인 갖가지 의문에 대해 성경을 바탕으로 명쾌한 답변을 던져주는 프로그램이다.

팀 켈러, 존 파이퍼, 돈 칼슨, 조슈아 해리스 등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출연해 성경이 조명하는 참 진리의 세계로 안내한다.

▪ 방송시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



CGN Global News

CGNTV 해외지사 소식

미주CGNTV

이민자들과 함께 하는 24시간 선교방송

미주CGNTV는 선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위성안테나를 선교사들에게 달아드리며, 선교현장의 분위기를 방송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 도미니카, 아이티 일대일 아웃리치에 참여해 약 40여 명의 선교사들에게 위성안테나를 달아드렸습니다. 최근 선보인 프로그램은 세미나 <선교적 교회>(찰스 밴 엔젠 Charles E. Van Engen)입니다. 선교가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언급한 깊이 있는 강의였습니다.

또한 미주 CGNTV는 매주 토요일 과테말라 비전신학교에서 제작된 2년제 24과목의 신학강좌를 3시간씩 위성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선교지의 열악한 상황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목회자로 헌신한 많은 사역자들을 위한 맞춤 선교교육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년째를 맞아 7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미주 지역은 다양한 채널로 24시간 방영돼 다양한 시청 소감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선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CGNTV를 통해 선교지의 상황을 알고 기도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에게 어떻게 안테나를 달아드릴 수 있나?” 등. CGNTV는 미국에서 시청하는 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한국에서라면 경험하기가 어려웠을 ‘믿음을 통한 삶의 변화’를 이민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 오게 해 신앙을 갖게 하셨



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분들에게 CGNTV는 정말 유익한 방송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거점]

CGNTV 5개 해외지사, 제작센터(미국, 일본, 중국, 태국, 아랍)들이 현지 선교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각 센터들은 영적 콘텐츠를 자체 제작·보급하고, 각 지역교회들과 협력하며 현지 선교 사역에 주춧돌이 되고 있다. 특히 각 센터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식 사역에 힘쓰고 있다. 각 센터에서 보내 온 국가별 선교소식을 전한다.

일본CGNTV

일본교회의 미래를 위한 다각적 섬김

일본CGNTV는 2013년, ‘차세대 양성’, ‘목회자 업그레이드’, ‘전도’ 이 세 가지를 사역의 큰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그中最 가장 핵심 사업은 러브소나타와 일본 무목교회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는 지난 5월 오키나와까지 18번 개최되었습니다.

집회는 오는 11월 군마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야마구치, 오비히로 등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무목교회 사역은 무목교회 후원금을 기반으로 그분들께 무료로 CGNTV 안테나를 설치해드리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체 8000여 교회 중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700여 개나 됩니다. 현 교회들은 CGNTV를 통해 국내외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본 CGNTV는 차세대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린이, 청소년 대상 <유아스페셜 전도콘서트>, <키즈 페스티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세미나>, <그랜드캐년 탐사여행>을 통해 한·일교류의 교류보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가페CGN(NGO, 미네노타츠히로 목사)’과 협력해 일본인들의 어려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선 “CGNTV가 없는 일본교회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교회학교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활용할 프로그램이 많다”, “1주일 내내 큐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등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일본교회와 같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태국CGNTV(방콕 제작센터)

태국 각지, 방송 선교를 위한 첫걸음

지난 2010년 11월 태국CGNTV가 처음 시작할 당시, 저희는 태국어 말씀강해 제작을 위해 각 교회를 돌며 정말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예배 설교를 녹화, 촬영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법 큰 규모의 세미나나 집회도 촬영하는 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한 달에 두 번 교단 세미나 및 교회 세미나를 중계 촬영하고 있습니다. 또 제작된 프로그램들은 DVD로 제작하여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시골교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태국어 큐티 방송도 한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부터 태국어 큐티 책도 출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는 정기적인 큐티세미나를 열어 큐티를 알리는 작은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태국 크리스천들이 더욱 강건해지고 나아가 태국이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랍CGNTV(아부다비 제작센터)

아랍 깊숙이, 아랍을 비추는 방송으로

아랍CGNTV는 크리스천 시각으로 바라본 중동 소식들을 전하고, 다양한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CGNTV 글로벌 컨텐츠 다큐멘터리로 <에클레시아>, <라마단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아부다비의 종교부지에 위치한 에반젤리칼 교회의 숨겨진 기독교 역사 이야기입니다. <라마단…>은 무슬림들의 라마단 기간 생활 모습을 밀착 취재해 담을 예정입니다.

이밖에 오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이집트 선교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아부다비 제작센터가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는 현재 여자 대학생들이 한류에 빠져있어 종종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덕분에 무슬림 여인들을 인터뷰하며 그녀들의 속내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



니다. 96%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에 CGNTV 제작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연일 50도가 넘는 사우나 날씨가 만만치는 않지만, 아랍 CGNTV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중문CGNTV(타이페이 제작센터)

중문대에 말씀의 통로로

중문CGNTV는 현지어(중국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중화권 선교 네트워크 사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 방송 중인 프로그램으로 <생명의 삶>, <말씀의 샘>, <공중신학강좌>,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 등이 있고, 꾸준히 현지의 좋은 세미나들을 편집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의 네트워크 뉴스를 한국에 보내기도 합니다.

각 프로그램들은 현지어 자막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간체(중국대륙 공식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수급하는 영상의 경우엔 간혹 ‘번체(한자)’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중화권에서 중국은 간체, 대만, 홍콩 등은 번체를 문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GNTV 제작센터가 있는 이곳 대만의 교회들은 지금 성장기에 있습니다. 약 2300만 명의 인구 중 5% 정도가 크리스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언어의 장벽이 낮고 상호 협력에 적극적이어서 중국 선교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중문CGNTV는 한국 · 대만 연합 청년 단기선교 팀과 함께 꾸준히 위성 안테나 설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분들은 이런 모습에 여러 훈훈한 반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사역에 감동했다며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고, 적은 돈이나마 손에 쥐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오는 격려의 댓글들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는 특별히 보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에 제약이 많습니다. 혼재돼 있는 언어와 문자의 벽도 아직은 만만치 않은 숙제입니다. 말씀에 목마른 중문대의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의 통로가 더욱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CGNTV 신임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 선출

CGNTV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에 모여 (주)미진솔텍 회장 정상건 씨를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온누리교회 장로로 CGNTV 개국 초기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날 정 위원장은 선출과 함께 “CGNTV 운영을 위한 후원 그룹 활성화와 정기 후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모임에서는 CGNTV 방송 및 운영 현황에 관한 1분기 결산 보고 등이 진행됐다.



CGNTV 개국 8주년 ‘시청자와 함께’ 기념행사 ‘선교현신자 선발’ 감사예배

CGNTV는 지난 4월 7일 개국 8주년을 기념하여 온누리교회 서빙고와 양재 캠퍼스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오픈 스튜디오’ 및 ‘CGNTV에 바란다’, ‘CGNTV와 사진촬영’ 등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들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서빙고에서는 CGNTV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려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CGNTV는 개국 8주년을 맞아 사전에 자사 직원들 중 4명의 직원을 선교현신자로 선발해 ‘선교현신예배’를 드렸다.



CGNTV 직원 수련회 ‘다시 복음 앞에’ 방송 선교사로 각오 다져

CGNTV는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를간 양지 Acts29 비전 빌리지에서 직원 수련회를 가졌다. 직원들은 ‘다시 복음 앞에’를 주제로 수련회를 갖고 방송 선교사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이날 직원들은 ‘도전 골든벨’, ‘MBTI 검사’ 등 자체 순서들을 통해 끈끈한 팀워크를 다지고, 저녁에는 예배와 기도회로 영성 훈련시간을 가졌다. 기도회에서는 20명의 직원이 선교사로 서원하기도 했다.



CGNTV, 계원예술대학과 산학협력 체결 크리스천 방송인력 양성, 영상선교 발전 도모

CGNTV는 지난 5월 22일 경기도 의왕시 계원예술대학교에서 ‘CGNTV와 계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CGNTV 유재건 대표와 계원예술대학교 이남식 총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크리스천 방송인력 양성과 디자인

분야의 실용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CGNTV는 향후 2년 동안 계원예술대학교 학생들에게 방송제작 현장실습과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계원예술대는 CGNTV에서 현장실습과 인턴근무를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



CGNTV,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신앙고백 최초 보도

CGNTV 뉴스프로그램 CGN투데이가 지난 6월 20일 고(故)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믿음을 증언하는 영상을 최초로 보도했다. 황장엽 전 비서는 김일성을 도와 북한의 주체사상을 완성했던 인물. 11분 가량의 이 동영상에 따르면, 황 전 비서는 탈북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가 통일되는 길은 종교적인 방법 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CGNTV, 제 23회 구국성회 주관 방송사로 선정 1만 5천 군종들의 기도 현장 방송

CGNTV는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제23회 기독 장병 구국성회의 주관 방송사로 선정돼 집회 현장을 중계했다. 매년 6월 25일을 전후해 열리는 본 집회는 1만여 명이 넘는 대한민국 군종들이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기독원에 모여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대표적인 구국 기도회이다. 이번 중계는 그간 CGNTV 가 군 선교 프로그램 <충성! 은혜로軍> 등을 통해 꾸준히 군 선교현장과 함께 한 것이 계기가 됐다.

TV편성프로그램

CGNTV Program

CGNTV Program

일	월	화	수	목	금	토
<p>04:50 일본 야마토 갈보리 채플예배</p> <p>05:5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기적(영어)</p> <p>06:30 생명의 삶</p> <p>06:50 주일예배(1부)(LIVE)</p> <p>08:3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입니까</p> <p>09:00 주일예배(2부)(LIVE)</p> <p>10:4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11:20 새벽나라</p> <p>11:30 주일예배(3부)(LIVE)</p> <p>13:10 미니콘서트 쉼</p> <p>13:20 어린이예배</p> <p>13:50 주일예배(4부)(LIVE)</p> <p>15:5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p> <p>16:00 ENGLISH WORSHIP SERVICE</p> <p>17:00 힐송 컨퍼런스</p> <p>17:30 파워타임 – 이찬수 목사</p> <p>18:1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19:00 열린새신자예배(LIVE)</p> <p>20:3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21:30 파워타임 – 유기성 목사</p> <p>22:10 주일예배</p> <p>23: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00:30 파워타임 – 박은조 목사</p> <p>01:1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p> <p>01:40 90일 성경일독 <통큰통독></p> <p>02:30 크리스천 리더십 스쿨</p> <p>03:20 크레이그 그로쉘의 예수님은 누구신가</p> <p>03:50 비전타임 – 지형은 목사</p>	<p>05:00 새벽기도회(LIVE)</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6:20 파워타임 – 이재철 목사</p> <p>07:00 파워타임 – 서정오 목사</p> <p>07:40 자기 이해를 위한 상담기초이론(영어)</p> <p>08:20 주영훈의 편편한 북카페</p> <p>09:00 파워타임 – 강준민 목사</p> <p>09:4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10:20 파워타임 – 유기성 목사</p> <p>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11:40 바이블 Q & A</p> <p>12:00 파워타임 – 홍정길 목사(영어)</p> <p>13:00 충성! 은혜로軍</p> <p>13: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14:00 비전타임 – 정근두 목사</p> <p>14:40 비전타임 – 김형준 목사</p> <p>15:2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p> <p>15:40 비전타임 – 양춘길 목사</p> <p>16:20 맥스 루케이도의 10분의 혁명</p> <p>16:50 새벽나라</p> <p>17:00 나는야 주의 어린이</p> <p>17:30 2013 마리아행전</p> <p>18: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18:40 반갑습니다</p> <p>19:00 비전타임 – 박은조 목사</p> <p>19:40 힐송 컨퍼런스</p> <p>20:20 파워타임 – 이재훈 목사</p> <p>2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21:50 새벽기도회</p> <p>22:30 론 솔로몬의 창세기 강해</p> <p>00:0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00:40 크레이그 그로쉘의 유재건의 크리스천</p> <p>01:20 새벽기도회</p> <p>01:50 조셉 프린스의 은혜</p> <p>02:30 젠센 프랭클린의 부흥</p> <p>03:00 SALT & LIGHT</p> <p>03:40 이어령, 이재철의 성서스토리텔링</p>	<p>05:00 새벽기도회(LIVE)</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6:20 비전타임 – 유기성 목사</p> <p>07:00 파워타임 – 이영훈 목사(영어)</p> <p>07:40 TV 아버지 학교(러시아어자막)</p> <p>08:20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p> <p>09:00 파워타임 – 유진소 목사</p> <p>09:4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10:20 수요여성예배(LIVE)</p> <p>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11:40 바이블 Q & A</p> <p>12:00 파워타임 – 김지철 목사</p> <p>13:0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14:00 비전타임 – 지형은 목사</p> <p>14:40 비전타임 – 권준 목사</p> <p>15:2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p> <p>15:40 비전타임 – 김병삼 목사</p> <p>16:20 힐송 컨퍼런스</p> <p>16:50 새벽나라</p> <p>17:00 나는야 주의 어린이</p> <p>17:30 크리스천 리더십 스쿨</p> <p>18:00 비전타임 – 이재훈 목사</p> <p>18:4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p> <p>20:20 파워타임 – 강준민 목사</p> <p>2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21:50 새벽기도회</p> <p>22:30 론 솔로몬의 창세기 강해</p> <p>00:0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00:40 크레이그 그로쉘의 유재건의 크리스천</p> <p>01:20 새벽기도회</p> <p>01:50 조셉 프린스의 은혜</p> <p>02:30 젠센 프랭클린의 부흥</p> <p>03:00 SALT & LIGHT</p> <p>03:40 이어령, 이재철의 성서스토리텔링</p>	<p>05:00 새벽기도회(LIVE)</p> <p>05:40 CGN 투데이</p> <p>06:00 생명의 삶</p> <p>06:20 파워타임 – 박은조 목사</p> <p>07:00 파워타임 – 김창근 목사</p> <p>07:40 Why Mission?(스페인어)</p> <p>08:20 브라보! 마이 라이프</p> <p>09:00 비전타임 – 권혁빈 목사</p> <p>09:40 SALT & LIGHT</p> <p>10:20 파워타임 – 이찬수 목사</p> <p>11:00 이어령, 이재철의 성서스토리텔링</p> <p>11:4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12:00 비전타임 – 장덕순 목사</p> <p>14:40 비전타임 – 정인수 목사</p> <p>15:20 바이블 Q & A</p> <p>15:40 비전타임 – 정근두 목사</p> <p>16:20 우리가 몰랐던 무슬림</p> <p>16:50 새벽나라</p> <p>17:00 예수님이 좋아요</p> <p>17:30 2013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p> <p>19:00 비전타임 – 김승욱 목사</p> <p>19:40 SALT & LIGHT</p> <p>20:20 파워타임 – 이기훈 목사</p> <p>2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21:50 새벽기도회</p> <p>22:30 론 솔로몬의 창세기 강해</p> <p>00:0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00: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 복음앞에</p> <p>01:4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기적(영어)</p> <p>03:10 반갑습니다</p> <p>03:50 비전타임 – 김병삼 목사</p>	<p>05:00 새벽기도회(LIVE)</p> <p>05:40 CGN WORLD REPORT</p> <p>06:00 생명의 삶</p> <p>06:20 파워타임 – 김지철 목사</p> <p>07:00 파워타임 – 홍성옥 목사</p> <p>07:40 성경산책(인도네시아어자막)</p> <p>08:2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09:00 파워타임 – 이기훈 목사</p> <p>09:40 충성! 은혜로軍</p> <p>10:20 이재훈 목사의 비전메시지</p> <p>11:00 CGN 비전특강</p> <p>12: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기적(영어)</p> <p>13:0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13:40 비전타임 – 김양재 목사</p> <p>14:40 비전타임 – 마크 최 목사</p> <p>15:2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p> <p>15:40 파워타임 – 이영훈 목사(영어)</p> <p>16:20 웨인 코데이로의 알로하 주님</p> <p>16:50 새벽나라</p> <p>17:00 나는야 주의 어린이</p> <p>17:30 90일 성경일독 <통큰통독></p> <p>19:00 비전타임 – 박완철 목사</p> <p>19:40 충성! 은혜로軍</p> <p>20:2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21:0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21:50 반갑습니다</p> <p>22:3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p> <p>22:50 새벽기도회</p> <p>23:3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입니까</p> <p>00:00 CCC 드림워십</p> <p>00:40 2013 마리아행전</p> <p>01:40 하용조 목사의 사랑(영어)</p> <p>03:1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03:50 파워타임 – 권성수 목사</p>	<p>05:00 새벽기도회(LIVE)</p> <p>05:40 CGN WORLD REPORT</p> <p>06:00 생명의 삶</p> <p>06:20 파워타임 – 김지철 목사</p> <p>07:00 파워타임 – 김인중 목사</p> <p>07:40 횃불 트리니티 성경강좌 –사사시대와 우리시대</p> <p>08:30 SALT & LIGHT</p> <p>09:10 최신애의 행복한 식탁</p> <p>09:50 나는야 주의 어린이</p> <p>10:20 파워타임 – 이재철 목사</p> <p>11:00 2013 마리아행전</p> <p>12:00 충성! 은혜로軍</p> <p>12:4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p> <p>13:20 브라보! 마이 라이프</p> <p>14:40 비전타임 – 유진소 목사</p> <p>15:2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p> <p>14:40 비전타임 – 이규현 목사</p> <p>15:40 비전타임 – 진재혁 목사</p> <p>16:20 예수님이 좋아요</p> <p>16:40 조셉 프린스의 은혜</p> <p>17:40 젊은이를 위한 예배</p> <p>19:0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기적(영어)</p> <p>19:40 독수리5형제</p> <p>20:20 토크콘서트 <힐링유></p> <p>21:00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p> <p>21:50 반갑습니다</p> <p>22:30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p> <p>22:50 새벽기도회</p> <p>23:30 맥스 루케이도의 10분의 혁명</p> <p>00:00 비전타임 – 정근두 목사</p> <p>00: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p> <p>01:40 하용조 목사의 사랑(영어)</p> <p>03:10 주영훈의 편편한 북카페</p> <p>01:40 비전타임 – 김승옥 목사</p> <p>03:50 파워타임 – 김형준 목사</p>	



사랑을 낳는 사랑 CGNTV 후원인 ‘법무법인 산지’ 이은경 변호사

CGNTV는 100% 후원으로 운영된다. 후원자에게 후원은 비용을 쾌척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CGNTV에게도 후원은 재정적 기반 이상의 소중한 자양분이다. 후원자들에겐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다. 또 그것은 분명 어디선가 또 하나의 스토리를 낳고 열매가 된다. 귀한 후원자 이은경씨의 스토리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이은경 씨는 ‘법무법인 산지’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다. 10여 년간 판사로 재임했고, 2002년 ‘산지’를 오픈했다. 그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씨 법률 대리인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그녀의 회사 ‘산지’는 갈렙이 얻을 것을 확신했던 땅 ‘헤브론 산지’를 의미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묻혔던 땅이기도 하다. 사명(社名) 때문일까? 법무법인 산지를 운영하고 있는 그녀도 – 그녀의 표현을 빌자면 – ‘하나님을 향한 혁명적 동기 유발’, 곧 ‘믿음’의 과정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현재 ‘산지’ 수익의 십이조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그중 상당 금액은 CGNTV를 후원하는데 쓰인다. 그녀가 그런 결정을 한 데는 CGNTV와 함께 했던 영적 추억의 이유가 컸다.

그녀는 2005년 미국 뉴욕주립대로 1년 간 연수를 다녀왔다. 그 1년 동안 어쩌면 법학 공부보다 CGNTV와 더 가까이 있었다고 한다. 설교, 말씀강해, 세미나 등은 물론 영어교육 프로그램까지 섭렵할 정도였단다. 그녀는 오히려 해외에 있으니 CGNTV가 더욱 의지가 됐다고 했다.

그녀는 연수 기간을 마친 후, 여러 일들을 계기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법대로, 원칙대로 그리고 정의롭게’라는 원칙을 세우게 되었단다. 보이지 않는 탈세의 유혹이 만연한 사업 현장에서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수익의 20%, 십이조를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다. 이런 그녀의 행보는 CGNTV와 함께 하며 들었던 무수한 말씀, 은혜의 찰나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그녀는 ‘요즘 산지가 교회일 수 있을까?’ 하는 물음 중에 있다고 한다. 이윤을 추구할 사업터가 그저 물질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딜레마를 겪으면서 말이다. 그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선교지에 끊임없이 영적 힘을 흘려보내려는 CGNTV의 생각과 패를 같이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CGNTV가 세계 최고의 방송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곳, 즐거워하시는 곳으로. ‘Love each other, forever!’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곳으로. 더불어 그녀는 ‘법무법인 산지’가 더욱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한다. 그녀에게 임했던 말씀들은 이미 그녀만을 위한 것이 아닌 듯 보인다.



병상에 찾아오신 하나님

후원자_ 안애경 님

저는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치료를 받기 위해 살고 있던 전남 순천에서 올라와 이곳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고,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입원 후 처음 몇 개월은 움직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했었지요. 그때 처음 접한 것이 CGNTV였습니다.

낯선 서울, 외로운 병원에서 고통스런 치료를 받던 제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여러 신앙적인 소식도 접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지금은 몸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평일에는 CGNTV를 통해 새벽기도회와 청년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해주시고 예배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CGNTV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담아 제 용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앞으로도 CGNTV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같이 병상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선교지에 뿌려지길

후원자_ 황혜정 님

저희 어머니(김정강 성도)께서는 작년 11월 18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 중에도 늘 근검절약하신 분이셨습니다. 소천하시면서 한 푼 두 푼 그렇게 모으신 귀한 돈을 저희에게 유산으로 남기셨으니까요.

어머니의 외로운 삶에서 CGNTV는 인생의 친구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선교사님들이 나오는 CGNTV의 <독수리5형제>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어머니께서 채 남기시지 못한 마음의 유언을 들어드리고자, 이렇게 CGNTV에 현금을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응원하시던 오지 선교사님들께 CGNTV 안테나가 달려지길 소망합니다.

이 돈이 쓰이는 그곳에 꼭 저희 어머니(김정강 성도)의 이름이 불리길 원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불리는 그 땅을 기억하며 그곳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고 있는 CGNTV에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CGNTV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CGNTV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입니다. 선교를 위한 선교사! 선교지를 품은 여러분의 손길은 세계 각국에 복음으로 선포되어 생명을 꽂피울 것입니다.

후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GNTV 방송사역 후원

1) 정기후원

- (1) CMS 자동이체(Cash Management Service)
 - give.cgntv.net '정기후원하기' 정보를 입력하시면 금융결제원 등록을 거쳐 선택하신 출금일(매달 5일, 15일, 25일 중 택일)에 자동이체 후원이 시작됩니다.

(2) 은행 자동이체

-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뱅킹 자동이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외환은행 630-004878-302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NH농협 301-0072-3639-01
 - <예금주 (재)온누리선교재단>

2) 일시후원

- (1) give.cgntv.net '일시후원하기'를 클릭한 후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2) ARS 전화후원: 060-700-1660(한 통화에 5천원)
- (3) 후원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02-67804
* 후원문의: 02-796-2243

3) 기도후원

CGN가족의 일원으로 정기 기도모임을 통해 CGNTV를 지원하고 격려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시간, 장소>

- 매주 금요일 아침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층 카페방
- 매달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 CGNTV 본사 1층 세미나실

CGNTV 실행위원회

김종건(위원장) 김용기 김종성 배종수 이광형 이인용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위원장) 강신익 구재영 권득한 김관근 김두진 김명세 김성묵 김성진 김수광 김영길 김장렬 김정훈 김종인 김홍국 문아란 박상송 서춘희 손한기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오진권 유병진 유주희 윤현진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덕한 이석일 이용경 이용만 이은경 이장수 정병균 정영기 정진호 조옥형 지성한 차준한 최도성 최득린 함승아

2. 드림온 캠페인-선교지 설치 후원

본 후원은 세계 9개 권역 170여 개 나라 선교사님들께 위성 안테나를 지원하시는 캠페인입니다. 선교지를 직접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지역-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 (1) 인터넷 신청: give.cgntv.net '드림온 캠페인'을 클릭하신 후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2) 계좌입금: 하나은행 573-910007-69605
* 문의: 02-796-1118
<예금주:(재)온누리 선교재단>



사랑을 세워가는 ‘법’

사랑이 무너지지 않게 돌보는 일
그리고 그 위에 믿음과 소망을 함께 세우는 것
법을 잘 알고 법을 잘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산지를 두드리십시오
법을 통해 사랑을 세워가는 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당신을 더 행복하게

법무법인 산지 는 국내의 크고 작은 상장회사와 등록회사 및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위하여 회사설립 단계부터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회사법 상의 모든 쟁점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보다 양질의 자문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법인은 중소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각종의 법률자문을 시행하여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실히 자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SANJI LAW FIRM

법무법인 산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스타워 5층 고객센터
TEL: 02-2055-3300 FAX: 02-2055-3434 E-mail: sanji@sanjilaw.com

서비스 제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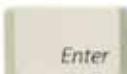
- 회사 및 합병분사 등에 관한 자문
-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에 관한 자문
- 증자 및 김자 관련 자문,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수행
- 공정거래와 기업규제,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
- 기업간의 국내외 계약서의 작성 및 자문
- 특허 및 저작재산권 등에 관한 자문
- 회사의 절세방안 및 기업자산관리에 관한 자문
- 일반 민사 및 가사업무
- 부동산 관련 재개발 재건축 건설 등 각종업무



꽃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Dewed Flower



www.duwedflower.com



02)796-8980 (전국배송가능)

두웨드 플라워 추천 상품

꽃다발



[초이]

[온나라]

[바아비]

[플로섬]

꽃바구니



[꽃수반-01호]

* 지역에 따라 배송되는 상품이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 지역만 두웨드 플라워 자체 제작 상품 발송)
* 매장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B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두웨드 플라워의 수익금은 CGNTV를 통해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를 위해 사용됩니다.